

사회

이웃돕기 성금 미리 풀 순 없나요

공동모금회 “작년 성금만 지출 가능”... 복지시설 고달픈 설

설(23일)을 앞두고 광주지역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마저 지원을 대폭 줄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쓸쓸한 설을 맞고 있다.

1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설이 다가오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차례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없으나 지난해 모금액(이월금 등)이 전년보다 급감하면서 규모를 60% 가까이 줄였다.

지난해 설 명절에 저소득층 가정과 소규모 시설 등에 모두 1억4000만 원을 지원했던 공동모금회는 올해에는

8000만 원이 줄어든 6000만 원 밖에 책정하지 않아 공동모금회 지원만 바라던 소규모 시설 분위기가 크게 침체된 상태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자체 이월금 규모가 큰 쪽으로 줄었고, 정해진 배분액으로 신규사업 등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명절 지원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의 명절 지원사업비 축소가 알려지자 시설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공동모금회의 지원마저 없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올해 모금액 일부라도

조기 집행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동모금회측은 “공동모금회 사업은 선 배분 후 모금을 원칙으로 해 현재로서는 설 명절 지원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금액 추이와 다른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재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액 축소나 후일 감소로 명절 분위기를 못 타는 것은 비단 소규모 시설만의 일은 아니다.

웬만한 규모인 지역사회복지시설들도 과거 명절 때면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불품 기부 등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 설은 앞두고 전혀 들어오

지 않거나 액수와 양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의 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난해 명절 때만 해도 민간사회단체 등의 온정의 손길이 몰렸지만, 올해는 단 2개 민간단체만이 찾아왔을 뿐이다. 또 2009년 4816만 원이던 후원금이 지난해 4430만 원으로 10% 가량이 감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설이라고 다를 건 없지만 명절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갖는 상실감이 더 크다”며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각계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설 택배 김·멸치 등 생활용품이 대세

불황 탓... 물량은 늘어

“예전에는 배나 굴비, 전복 등이 주된 품목이었는데 요즘은 김이나 멸치, 생활용품이 대부분입니다. 경기 불황 탓이었지만 배송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18일 만난 택배기사 강모(37)씨.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새벽 5시 출근, 밤 11시까지 일주일 넘게 특근을 하고 있다. 평소 하루 평균 150건을 배달했지만 이번 명절 기간에는 두 배 가까운 300건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행여 배달이 늦을까, 물건이 파손될까 온종일 쉴 틈이 없다는 강

씨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부담없는 가격의 상품이 인기인 것 같다”며 “김치, 과일 등 신선식품과 비누, 식용유 등 생활용품이 대세”라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 김모(40)씨는 설을 맞아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휴일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맡은 지역의 평소 택배 물량은 150여개 정도였지만 설을 앞두고 250여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기가 어려우면 택배 물량도 늘어나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 찾아보기 어려우니 간단한 선물로 대처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85) 김종두

가그매와 정치인 앓다라고소 강영석 의원

이번엔 본인인 고산당해

소감한마디 하고나?

고산당한 고산인 참, 고산하이

장애인 등친 복지시설 원장

7년간 직원 임금 5600만원 가로채 생활비 사용

시설 운영비 대출금 이자 갚아

지적장애인이 7년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을 가로챈 ‘못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복지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금융채무 이자를 갚는데 쓰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지적장애인 철골공사업체에서 일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거주중인 지적장애인 김모(52)씨의 7년간 임금 56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

금받아 쓴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시설 운영비 중 3300여만 원을 자신의 금융채무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김씨를 광산구에 있는 철골·창호 공사업체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소개한 뒤 임금관리를 해주었다며 지난해 11월까지 7년여 동안 매달

70만원의 피해자의 임금을 받아 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또 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으로 운영되는 시설 운영비 중 3300여만 원을 자신이 2006년 대출받은 금융권 채무 2억7000여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임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고,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비에 사용된 금융 채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산구는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8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와 우석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접수하고 있다.

공무원 피습 민원인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8일 광주시 청사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광주일보 1월 18일 6면> 박모(5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0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오모(46·6급)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소男’ 강용석, 의사에 고소 당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전형근)는 최근 H병원 의사 김모(47)씨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에서 “강 의원의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병역비리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H병원 김○○ 선생이(박 시장 아들) 진단서를 발급해줬는데 그 김 선생은 10년 전에 병역비리로 구속됐던 그 김 선생이 맞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뇌물수수 등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유예된 적은 있으나 구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명.

/연합뉴스

광주서도 소셜커머스 사기 피해 속출

부산의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박모(29)씨가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해 부산 소재 소셜커머스 업체에 6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업체 대표 박모(32)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SK, 신세계,

GS, 롯데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피해자 3명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규모는 전국에서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가 소나무 훔쳐 판매

조경업자 등 무더기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고가의 소나무를 훔쳐 조경수로 팔아넘겨 역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경업자 민모(50)씨를 특가법 위반(산림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골짜기·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고흥군청 공무원 임모(45)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 무마 및 공사제계를 위해 군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받은 광주 모 방송사 PD 문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도가니 2억2000만원 손배소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 7명 11건에 2000만원씩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18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이하 인화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해자들의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해자들의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이 날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우석법인 소송의 인화학교

와 광주인화원에서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학생들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피고는 법인 직원 1명, 인화원 생활교사 2명, 인화학교 초등부 교사 3명과 사회복지법인 우석 1곳 등 모두 7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해자 1명당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별로 산정하고 우석법인에 대해서는 피해 원생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직인 및 교사, 원생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모두 2억2000만 원을 청구

했다.

민변은 민변 임선숙 지부장과 임태호, 임주영 변호사가 맡는다. 민변은 소장을 종전의 형사판결과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 원고들에 대한 진단서 등과 원고들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했다.

민변 임선숙 지부장은 “이번 소송 외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행정 당국 등 국가를 상대로 한 2차 소송도 준비중이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박증기!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2월1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